지역과 성장 '청년마을' 조성

익산시, 2억원씩 3년간 총 6억 국비 지원 받아

익산시에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청년마을'을 조성된다.

청년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지역대학 활용, 청년주거 정책 등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청년의 아이디어를 지역 특성과 연계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지역 활성화를 견인할 방침이다.

시는 10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유)사각사각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여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돼 매년 2억원씩 3년간 총 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시·도에서 161개 팀이 참가해, 1차 서면심사를 통해 34건을 선발한 후 2차 현장실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유)사각사각을 포함한 12개 팀이 최종 선정됐다.

(유)사각사각은 원도심 일원에서수공예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와 활발히 교류했던 백제 중심 익산에서 청년 그린크래프터(친환경 제품제작자)를 양성해 에코 기술의 중심지 '지구장이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을 위한 청년의 연대와 공동체의 장 마련 및 거점 중심 청년 상점 확대를 통한 제로웨이스트 마을 조성을 목표로, 중앙동 일원에 커뮤니티 공간, 공유 오피스, 게스트하우스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제로웨이스트 제품개발, 친환경제품 품평회와 축제를 통한 관계 및 생활인구 만들기를 시작한다. 내년에는 환경아이템 창업체험 및 교육을 통한 그린크래프터 양성에 집중한다.

또한 지구장이 마을 인증 친환경 제품 선정 및 박람회 등 2025년까지 지구장이 마을 기업화를 연차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청년마을은 청년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자 청년이 꿈꿀 수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정헌율 시장, "익산 강점 살려 공공기관 유치할 것"

교통·산업 인프라 등 지역 특색 살린 유치 전략 마련… 속도감 있게 업무 추진 당부

익산시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1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전략 마련으로 공공기관 유치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정 시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발전을 견인할 핵심 동력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이다"며 "교통과 다양한 산업 인프라를 갖춘 익산의 강점을 담은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라"고 전했다.

특히 관계부서 간 유치추진단을 구성하고 유치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정 시장은 정치권 등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익산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제2혁신도시 유치를 적극 건의해왔다.

더불어 각종 정부 공모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정 시장은 정부의 사업 방향을 면밀하게 분석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정 시장은 "정부 공모사업에 지역의 미래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지금까지 좋은 실적을 올려온 만큼 관련 부서는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형일자리 대창모터스 등 '2023서울모빌리티쇼' 전시 호응

전북군산형일자리 실무추진위원들이 최신 모빌리티 정보를 얻는 자리를 마련했다

군산시는 지난 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 전북군산형일자리 실무추진위원들이 함께 참관했다고 밝혔다.

2023서울모빌리티쇼는 1995년 시작해 2년마다 개최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모빌리티 산업전시회로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이라는 주제로 지난달 31일부터 9일까지 10개국 160여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여 다양한 모빌리티 콘텐츠를 선보였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북군산형일자리 참여업체인 ㈜대창모터스도 참가하여 자체 개발한 카고 전기화물차(다니고-C)를 비롯해 무시동 전기냉동탑차(다니고-R2), 전기상승탑차(다니고-U), 전기윙바디(다니고-W)까지 총 4가지 모델의 전시를 통해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한 안전성과 편리성에 대해 어필하며 참관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더불어 이브이케이엠씨 부스에서는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인 ㈜명신에서 생산한 마시다 2밴이 전시되어 실속있고 가성비 좋은 전기화물차를 찾는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2023서울모빌리티쇼를 참관한 전북군산형일자리 실무추진위원들은 모빌리티 산업의 생태계 변화를 몸소 체감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최신 자동차 산업과 제품, 기술들을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했다.

㈜대창모터스 오충기 대표는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끊임없는 기술 및 제품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가 다채로운 독서문화 행사로 시민이 행복한 책 읽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간다.

경계 없이 비추는 문화의 빛

익산시, 독서문화행사로 풍성한 책읽는 도시 발돋움

익산시가 다채로운 독서문화 행사로 시민이 행복한 책 읽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간다.

익산시립도서관이 12일 도서관의 날부터 18일까지 제59회 도서관주간을 기념하며 책을 주제로 다양한 문화공연이 이달 펼쳐진다.

도서관 주간은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생활 진흥을 위해 한국도서관협회가 1964년부터 해마다 4월 도서관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캠페인이다.

익산시립도서관 7곳에서는 '경계 없이 비추는 문화의 빛, 도서관'을 주제로 강연,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준비했다.

우선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도서관주간 중 '구해줘 연체!' 행사로 도서관을 방문하는 연체 회원을 대상으로 연체를 풀어준다.

도서관주간 중 구독형 전자책을 대출한 이용자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구독형 전자책 이벤트'는 핸드폰 등을 활용해 일상에서 손쉽게 책 읽는 경험을 유도한다.

15일에는 초등 1~3학년을 대상으로 '거북이지리' 저자 '김유진 그림책 작가 초청 강연'을 모현시립도서관에서 실시한다. 작가가 책을 직접 읽어주며 작가의 경험이 어떤 과정을 통해 그림책 속 이야기로 바뀌는지 들려준다.

그 밖에 '사서랑 머그컵 뚝딱!',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캐리커처 포유', '체험프로그램', '꿈동화 인형극' 등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또한 각 도서관 자료실별 특색있는 주제 도서를 선별 및 전시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테마도서 전시', 도서관 이용자들이 그림책의 원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원화 전시회'를 진행하는 등 독서의 깊이를 더하는 행사들도 선보인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익산시민대학' 배움·소통의 장 톡톡

올해로 스무 해를 맞이하는 '익산시민대학'이 시민의 배움과 소통의 장으로 사랑받고 있다.

2004년부터 시작한 익산시민대학은 총 250여 강좌를 운영하는 동안 시민들에게 일상 속 배움의 즐거움을 선사하며 소통·공감하는 평생학습도시 익산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

시는 20주년을 기념해 '2023년 꽃다운 익산시민+ 대학'으로 새롭게 리뉴얼하며 12일 오후 2시 솜리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에서 '전원주 방송인'의 강좌로 시작을 알렸다.

전원주는 무명시절에서 인기 방송인이 되기까지 경험과 삶의 지혜를 유쾌한 웃음과 더불어 감동을 전할 '영원한 이등 인생은 없다'는 주제로 첫 번째 강연을 맡았다.

올해는 사회 각 분야의 명사들을 초청해 11월까지 운영하며 다음 강의는 이달 26일 '팝페라 듀오 스칼라와 함께하는 봄 콘서트'로 시민들을 찾을 예정이다.

특히 새롭게 리뉴얼하며 학습 접근성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직장인 야간강좌 및 북부권 평생교육을 위하여 찾아가는 강좌도 운영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취약계층 발굴 지원 복지부장관 표창

군산시가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22~2023년 겨울철 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복지 사각지대 제로(ZERO)'를 목표로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 동안 취약계층을 발굴해 신속한 공적지원과 다양한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복지 이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인적 안전망을 구축해 지역사회가 합심해 위기가구 발굴에 발 벗고 나섰다. /군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영유아 대상 로타바이러스 무료 접종 실시

군산시 보건소는 생후 2~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기존 선택 예방접종으로 20~30만원에 달했던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지난 3월 6일부터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되어 보건소 및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 가능하다.

백신은 경구투여 방식으로 로타릭스(2회 접종), 로타텍(3회 접종) 중 한 종류를 선택해 접종하며 두 백신 간 교차접종은 불가하다.

백신 종류는 백신에 포함된 혈청형 수에 따라 각각 1가와 5가로 구분되며, 질병관리청은 두 백신 모두 국내에 유행하는 로타바이러스 감염과 중증화 예방에 유사한 효과와 안전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접종시기는 1차 접종은 생후 15주가 되기 전 접종 하며 최대 생후 8개월이 되기 전에 모든 차수의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